

우리 나라 지역지리학의 연구 추세와 전망

안 영 진*

Recent Research Trends of Regional Geography and its Prospects in Korea

Young-Jin Ahn*

요약 : 1980년대 중반이후 영미 지리학계는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이를 둘러싼 방법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진 외국의 연구동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듯이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는 논설이 많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름대로의 비판적 안목에서 지역지리학적 관점에서 한국 지리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지역지리학적 연구관점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세련한 논저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그 연구성과도 축적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점은 1960년대 이래 서구의 지리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범칙추구적 방법을 중시한 연구경향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 지리학과 단절, 그리고 지역지리학 연구 자체의 어려움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장차 우리 나라의 지역지리학 연구가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다양한 척도의 단위 공간에 대한 사회적인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와 제 지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다양한 형식과 현대적 성격의 지역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지역지리학의 개념구성과 접근방법, 그리고 분석틀에 관한 발전적 모색도 필요하다.

주요어 : 한국, 지역지리학, 지역적 접근방법, 해외지역연구, 연구동향

Abstract : Since the mid-1980s there has been an intensive debate on a regional geography in abroad, and its renaissance has been widely expressed. Under the influences of these academic circumstances, many Korean scholars have tried to introduce this trend and at the same time to propose new development lines of the Korean geography with a critical perspective. However, the empirical study of Korean regional geography including area studies is characterized by a quantitative deficit on the one hand and by its peripheral position on the other. The main reasons of this marginaliz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y that we can find include a undifferentiated import of new systematic/nomothetic geography in the 1960s and 1970s, a historical interruption with a tradition of old Korean geography, 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regional geographical approach itself. Now we face with the fundamental changes including globalization/regionalization and an increasing actual demand for the information on different scales of space and plac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challenges, we inevitably need to revitalize various forms and modern characteristics of regional geographical approaches and try to reexamine the basic concepts, methods, and frameworks of regional geography.

Key words : Korea, Regional geography, Regional approaches, Area studies, Research trends.

1. 논의의 배경: 구미 지역지리학의 제적

최근 지리학에서 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근대지리학 성립 이래 지리학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지역지리학은 한때 뼈아픈 꺾임¹⁾과 아울러 쇠멸의 위기를 겪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60, 70년대에 걸쳐 지리학을 공간과학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지역지리학은 지리학의 중심적 위상을 상실하였으며, 무

엇보다도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와 비판적합리론(critical rationalism)에 입각한 공간분석적 신지리학이 그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물론 1970년대 동안 지역지리학을 새로운 인식론적 토대 위에 방법론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정당성을 다시금 확립하려는 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지리학은 주변화의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Bahrenberg, 1996). 결과적으로 신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전통 지역지리학은 기껏해야 사실을 기술하는 학문연구의 전(前) 단계 또는 실용적인 목적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임강사(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yjahn@chonnam.ac.kr)

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리학의 응용분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조류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먼저 영미와 프랑스에서, 그리고 뒤이어 네덜란드와 독일 등지에서 지역지리학을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Hauer et al., 1993; Hoekveld et al., 1994). 영미권에서는 현상학적, 정치경제학적, 그리고 그 어떤 경우라도 사회과학적 지향성을 띤 '신지역지리학(new regional geography)'을 확립하려는 광범한 논의가, 독일어권에서는 지지(Landeskunde 또는 Laenderkunde)를 해석학적으로 논증하려는 시도(Pohl, 1996; Werlen, 1997)가 대두하였다. 사실 이러한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지역을 재발견하고, 장소와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흥미로운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물줄기는 당연히 일련의 배경 위에 전개되었는데, 간략히 정리하여 지리학 안팎의 상황조건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문 내적 측면에서는 지리학을 공간과학으로 파악하고 공간적 패턴과 현상을 의도적 행위주체인 인간을 뒷전으로 밀어붙인 채 설명하려고 한 1960, 70년대 주류지리학의 학문이해에 대한 불만을 들 수 있다. 더군다나 많은 소장지리학자들이 논리실증주의자와는 또 다른 형식으로 인접 사회과학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이론에 눈을 뜨게 되면서 공간적인 것을 전적으로 사회적 구성체로만 생각하는 1970년대의 공간조복자(Raumexorzist)들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²⁾ 둘째로 지리학의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공간, 장소의 의미에 대한 지리학 밖에서의 활발한 논의도 지역지리학의 회귀 내지 복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편으로 공간이 인접 학문, 특히 사회학과 역사학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이는 자연히 지리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³⁾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함께 인간사에 관한 거대담론 내지 메타이론은 위기에 처하고 특별하고 특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생활방식이나 지역문화의 다원성을 용인하는 사회적 담론이 등장하면서, 사회·경제·문화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전체적 관점은 커다란 압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일회적인 개성기술적 지역상을 추구해온 지역지리

학의 논리는 새롭게 평가받게 되었다(Wood, 1996).

그렇다면, 서구 지리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신지역지리학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신지역지리학을 구성하는 관점과 접근방법은 전통 지역지리학의 그것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이 우선 기존의 논점과 연구동향을 통해 잠정적으로 탐색될 수 있다면, 일차적으로 그 핵심은 신지역지리학을 둘러싼 논의가 단원적 블록이 아닌, 부분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이론적·개념적 지향과 관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로 구성된 분화적 복합체라는 것이다(Holmen, 1995). 신지역지리학의 접근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치·경제학적, 인간주의적·현상학적, 구조(화)론적 관점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Gilbert, 1988; Pudup, 1988). 이미 알 수 있듯이 이들 접근방법은 하나의 응집적 지식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서로 간에 명확히 구획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차원에서 서로 상이한 접근방법들을 묶을 수 있는 핵심적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지역개념과 개인 및 역사에 관한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이해⁴⁾일 것이다.

하여튼 그 동안 신지역지리학을 둘러싼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이론적·개념적 논의로 지나치게 편향된 반면 경험적인 연구성과는 많지 않는 실정이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성과 역시 방법론과 관련한 통일적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자발주의(voluntarism)를 강하게 시현하고 있다. 당연히 나름의 공통성을 찾는다면, 연구주체(생산부문, 지역의 사회적 층화, 계급형성의 역사 등)에 대해 일반적인 이론적 논술을 행한 뒤, 실증적 사실을 서술하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험적 연구에 있어 이론적 추상과 실증적 기술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거나 결여된 또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신지역지리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험적 연구를 소개한다면, 지역발전을 역사적으로 재해석한 연구와 세계적 경제 재구조화가 국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을 들 수 있다(森川 洋, 1997; 1998).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신지역지리학은 - 이론적·개념적, 그리고 경험적 기획으로서 - 상당한 혁신적인 측면을 담고

있으며, 지리학 전반에 걸쳐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강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신지역지리학을 둘러싼 논의가 암시하듯, 이와 동시에 일련의 문제영역 내지 설명되어야 할 논점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특히 지역지리학이 앞으로도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 학문분야로 존립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테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간략히 간주해 보면, 첫째 신지역지리학의 혁신적 그리고 발전적 수고를 어떻게 공고히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곧, 지역지리학의 핵심적 개념과 용어를 둘러싼 부당한 오해와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로 지역지리학의 사회과학 지향적 내지 편향적 이해가 자연지리학에 대해, 나아가 지리학의 통합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학문적 경계를 크게 허물어 놓고 있는 신지역지리학이 혹시 초래할지도 모르는 지리학의 정당성(legitimation)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니 대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하여 우리 나라 지리학계의 지역지리학 연구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동안 지역지리학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 학계의 지역지리학 연구를 정리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이 글은 우리 나라 지역지리학 연구추세와 동향을 개관하고, 그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연구전망까지 간략히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지역지리학의 연구 추세

1)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

현대 한국의 지리학이 선진 제국의 학문적 흐름과 연구동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나라 지리학계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에서 언급한 외국의 (신)지역지리학과 관련된 논의로부터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비록 제한적이긴 하나 선진 제국의 지역지리학 연구동향을 소개하거나 지역지리학 연구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또한 지역지리학의 방법론을 나름대로 새롭게 모색하려는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기혁, 2000).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먼저 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 지리학에 있어 방법론적 체계모니를 장악한 논리실증주의 지리학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성찰하는 동시에 지역지리학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지역지리학을 재평가하는 시도가 있다. 김상호(1983)는 195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지역지리 지향의 근대지리학의 시대로, 그 이후를 공간지리를 내세우는 현대지리학의 시대로 보는 견해를 공박하면서, 양자는 각기 서로 다른 역할과 특징을 지니고 있듯이 지리학 전체에 있어 별개가 아닌 바람직한 접속의 문제가 지리학 연구의 장래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유우익(1986)은 역사적 전개과정이 상이하고 복잡한 환경이 내재된 생활공간인 지역을 범칙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논리실증주의 지리학의 한계와 표리를 이루는 지역지리학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전래의 개성기술적 지역지리학의 차원을 넘어선 공간분석적 접근방법을 원용한 과학적 지역지리학, 설명적 지역지리학의 정립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박영한(1987)은 지역주민의 삶의 특성을 고찰하여 한민족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지역문제를 구명하여 국토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지리학이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이 나아가야 할 주된 방향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한국지리학의 과제라고 논의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계통지리학이 수립한 이론과 개념을 폭넓게 수용한 지역지리학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지역지리학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지역지리학의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미약하나마 행해지고 있다. 김중욱(1994)은 지역연구를 국가사회의 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정하고, 지역연구에 있어 과제 또는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연구와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하(1997)는 세계체제론에 입각한 지역지리학의 방법론을 소개

하면서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는 지역형성 매커니즘을 밝히고 있고, 이정만(1997)도 지역연구의 접근방법론으로서 인간생태학을 검토하고, “지역 사람들의 삶의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는 지역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도시 사회에서의 삶의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적 환경 등도 환경개념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희연 등(1998)은 지역지리학 연구의 방법론을 둘러싼 학문적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고, 현대 지역연구의 과제는 지역연구에 내재되어 온 이론론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지방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지역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체계적 접근방법에 의거한 지역연구의 개념적 틀도 제시하고 있다. 이영민(1999)은 지역지리학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정체성 문제를 지리학의 주제로 제기하고,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이를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박규택 등(1999)은 지역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신지역지리학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관련성 등 이론적인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 입각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권정화(2001)는 근대 지역지리학 방법론과 관련하여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유기체론에 근거한 지역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지역지리학의 동향과 방법론을 소개하는 논저들도 존재한다. 류재현(1987)은 192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미국 지리학에 있어 지역개념의 발달과정을 고찰하면서, 미국에서 지역지리학의 쇠퇴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서태열(1989)은 서구 지역지리학의 발전과정을 검토하면서 (신)지역지리학의 복고와 재구성을 둘러싼 쟁론들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손명철(1994; 1995)은 지역지리학의 편역서를 통해 현대 사회이론에 비추어 본 신지역지리학 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지역지리 연구의 주요 흐름과 방법론을 논구하고 있다. 최근 김재완(2000)은 지지적 지리학의 방법론이 전성기를 이룬 1920~30년대 독일 지

학의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 이루어진 풍부한 관련 연구성과를 인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지역연구(area studies)를 중심으로 국내 지리학의 지역연구 동향과 성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형기주(1997)는 대한지리학회 주최 “지리학과 해외지역연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1963년 이후 한국 지리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해외지역연구를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양성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지(지역지리)의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전(1998)은 지리학의 해외지역연구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지역연구의 동향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래전망과 관련하여 외국 유학을 거친 소장학자들에 의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김희순(2000)은 사회과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외지역연구의 개념, 성격, 발달을 검토하고 지리학과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에서 지역지리학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논의는 전문 연구자의 수적 제한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잖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기본적으로 한국 지리학에 대한 자기성찰과 미래전망이라는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지리의 개념규정과 성격,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합의가 아직 불분명하며, 이를 분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준거가 여전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 지역연구로서 지역지리학 연구현황

오늘날 지역과 장소, 공간과 입지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을 넘어서서 여러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 비록 각 학문분야의 관점과 접근방법에 있어 적잖은 차이가 존재하나, 지리학을 비롯하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등에서 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비교적 오랫동안 수행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리학은 근대적 공식학문으로 확립되고 대학의 전문분야로 편입된 이래 지역(경관, 공간, 장소)연구 - 대상과 아울러 부분적으로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 를 통해 학문의 내적 정체성

표 1. 1945년 이후 출간된 한국에 관한 종합 지리서(일본서적 제외)

과 학문 외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관건으로 삼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꾸준히 추구해온 유일한 학문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서구의 근대적인 지리학이 도입된 이후, 아니 더 정확히 말해 196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논점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학문공동체 내에서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연구동향과 성과는 많은 지리학자들의 이

러한 '머릿속'의 보편적 정서나 신념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우리 나라 지역지리학 연구의 일반적 성격과 문제점을 자세히 평가하는 것은 후술에 맡기고, 여기서는 우선 지역지리학의 연구추세를 실제로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논제가 지역지리학적 연구에 해당되며, 그 논제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하

는 근본적인 개념문제(conceptual problems)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cf. Claval, 1998: 28-47),⁶⁾ 지역지리학의 연구동향에 관한 기존의 검토와 평가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국내의 지리학 연구자에 의한 지역지리학적 연구성과는 국내 지역연구와 국제 지역연구의 두 계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내의 다양한 단위 공간을 대상으로 한 지역지리학적 연구의 경우 첫째로 한국지리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최근 김종규(2000)는 1945년 이후 한국지리와 관련된 연구서적 및 대학교재에 관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간 출간된 한국 지리서에 있어서는 국내 학자들보다 외국인들에 의해 저술된 저서가 수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부분의 저술이 연구지지가 아닌 편찬지지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표 1). 무엇보다도 전통 지역지리학의 핵심적 특징인 개성기술적 방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른바 헤트너(Hettner)류의 전통적인 지지도식(laenderkundliches Schema)에서 제안된 항목구성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형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히 구체적인 형식논리나 이론에 근거한 체제구성을 획기적으로 시도하거나 기본의 서술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결하고 있다.

둘째, 일반 논문을 중심으로 지역지리학적 연구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지리학 연구의 활성화를 표방(?)하고 창간된 한국지역지리학회지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수록된 지역지리학 관련 논문을 통해 우리 나라 지역지리학 연구추이의 일면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류에 있어서는 필자의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지역지리학적 접근의 일반적인 특성이 비교적 뚜렷한 논문들을 추려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학회지는 1995년에 창간된 뒤 2001년 12월까지 통권 16호를 내놓고 있다. 단보를 포함하여 전체 수록 논문 145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중 국내의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지역지리학 논문은 총 27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역지리학적 성격을 견지한 논문은 전체 논문에서 약 1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표 2 참조). 전체적으로 다양한 계통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지역(특히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필자의 성향이 각기 반영된 개성 있는 논문임을 감안 하더라도, 접근방법과 핵심적인 내용범위, 그리고 서술체제에 있어 통일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하여튼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을 통해 본 지역지리학적 연구성과는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비록 본 학회지가 우리 나라 지리학계의 연구동향을 대표할 수 없지만, 지역지리학 연구의 양적 일면을 분명히 엿볼 수 있다. 아마도 또 다른 전국 차원의 학회지인 「대한지리학회지」나 「지리학연구」를 살펴보다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래에 들어와서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개인 또는 연구공동체의 관심사로 그리고 대학연구소나 각종 연구기관의 기획에 의해 단위 공간 내지 지역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나 시·군의 행정관청이 주관하는 지역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할 해외지역연구(area studies)의 국내적 변용이라는 성격을 띤 지역사회연구⁷⁾나 현안해결과 지역정책의 방향설정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과제 중심 지역연구로, 후자는 주지하다시피 도지(道誌)나 시·군지 내지 향토지의 편찬과 발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이러한 유형의 지역연구는 당연히 지리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전제로 하며, 지역지리학적 접근방법을 원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범주에 있어 지리학자의 관여와 연구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리학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도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⁸⁾

다른 한편으로 지리학자에 의한 해외지역연구도 넓은 의미의 지역지리학 연구의 범주에 넣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욱(1994)은 대한지리학회의 「대한지리학회」, 한국지리교육학회의 「지리학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의 「지리교육논집」,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지리학논총」을 대상으로, 창간 시기부터

표 2.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수록된 주요 '지역지리학적' 연구

1993년 말까지 이들 잡지에 수록된 논문을 토대로 하여 지리학 분야의 해외지역연구의 일반동향을 분석하고 있다.⁹⁾ 분석결과를 보면, 총 800편의 논문 중 불과 28편(3.5%)만이 해외에 관한 연구에 해

당되고, 정통적인 지역지리학적 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논문은 전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1980년대 이후의 논문이 75%를, 국가별로는 미국이 절반(14편, 5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표 3. 한국지리학자의 해외지역연구 (시기별)

나타나고, 분야별로는 도시지리학 분야가 8편, 경제지리학 분야가 6편, 그리고 지형학 분야가 5편으로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의 분석과 중복되나 보다 최근의 해외지역연구 동향을 형기주(1997)에 의거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대한지리학회」, 「지리학연구」, 「지리학논총」을 대상으로 창간시기부터 1995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김종욱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표 3, 4). 즉, 한국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외국에서 학위목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나 이들이 귀국하여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위취득 국가에 관해 쓴 논문이라는 것이다. 1980, 1990년에 걸쳐 해외지역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문지리학 분야의 논문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한국 지리학자들의 전공별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형기주, 1997).

그렇다면, 단행본의 형태를 띤 세계 및 해외지역에 관한 각종 지지서가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는가? 사실 20세기 후반이래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재편과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정보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여가활동(여행)의 확대라는 일상생활의 변화와도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학 교재용의 세계 지지서가 몇 종 나와 있으나, 해외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지역지리학적 연구서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은 실정이다.¹⁰⁾

3. 지역지리학 연구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우리 나라 지역지리학의 연구추세를 범주별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지리학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로 여겨졌던, 그리고 부분적이거나 여전히 중시되고 있는 지역지리학의 실재(Praxis)는 이론적 논의나 학문공동체의 신념적 동의와 커다란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많은 학문의 전통이 짧고, 따라서 지역관련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사실(김종욱, 1994)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

표 4. 한국지리학자의 해외지역연구(지역별)

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 한국 지리학계에서 지역지리학의 연구성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빈약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질적인 차원에서 연구방법의 내적 정합성(논리성)과 다루는 주제의 외적 적합성(사회적 적실성)을 조화시킨 격조 높은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비한다면, 비록 뒤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이론적·방법론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은 꼭 검토하고 넘어갈 논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위 공간에 관한 지역지리학적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성과면에서도 한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일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논의된 바(김종욱, 1994; 이전, 1998)가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보다 자세히 부연하여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로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의 지리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칙추구적 연구방법을 중시한 서구의 연구경향을 아무런 여과 없이 수용하였으며, 특히

계통지리 위주의 접근을 크게 강조하였다는 점이다.¹¹⁾ 류제현(1987)과 권정화(1997)는 이점을 직화하게 지적하고 있다.¹²⁾ 물론 이러한 사정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 지리학과 땀아픈 단절과 지리학의 암흑기를 경험한 한국 지리학의 발달에 있어 독특한 역사적 상황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 서구 지역지리학의 연원이 근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지리학의 뿌리는 전통지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시대의 지리학에서 발견되는 지리지(地理志)는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지리학과 비교해 볼 때, 방법론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지언정 목적과 형식에서는 유사하였다. 특히 지역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고자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지닌 학문체계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통 지리학의 지리지(地理志)가 한 지역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추구하면서 대부분 일정한 요목 하에 나열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백과사전적 총람을 강조한 점에서 현대적인 관점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 있으나, 일정한 지

역 내에 분포하는 제 현상에 대한 계통적이고 종합적인 기록을 중시한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지역지리학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양보경, 2000).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전통시대의 지리서가 현대적 시각에서 분명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국토와 각 지역의 성격과 특징을 추출, 표현하고자 노력하면서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논리체계와 실용성도 확보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근래에 와서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지역지리학 연구 자체의 어려움에서도 하나의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적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며, 부분적으로 수긍이 가는 점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지역지리학적 연구성과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비판의 용이함과 달리 연구의 실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일차적으로 많은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한 인정은 차지하고 손쉬운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모노그래프(monograph)의 형태를 띤 연구일 경우에는 지역지리학적 연구의 종합적 접근이 말해 주듯, 이는 계통지리학적 또는 특정 지리요소에 대한 연구가 축적한 상당한 정보를 전재로 하는 동시에 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방법론적 난점도 늘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지리적 접근은 이미 조사단계에서 다양한 요건, 이를테면 “지역간의 연결성과 계층성, 지역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상호간의 관계, 현장의 경험적 지식, 인간행위의 공간적 의식체계, 토착과 외래의 현명한 구별”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예술가와 같은 천재적 직관력을 필요로 하며 현장에 대한 관찰력과 조사력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결코 쉽지 않는 성가신 연구인 것이다(형기주, 1987).

셋째, 이와 더불어 한국 지리학계에 있어 해외지역연구의 부진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이 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국내 지역에 대한 저조한 지역지리학적 연구에도 원인(遠因)으로 작용하는 학문 내외의 환경적 장애요인도 들 수 있다. 즉, (해외)지역 연구에 수반되는 현지조사 비용의 조달문제와 중

·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 집필에 과도한 연구인력의 소모(이전, 1998)가 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4. 지역지리학 연구의 발전적 과제

우리 나라 지리학계에 있어 지역지리학은 양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다. 자연히 그 어떤 학문분야보다 지역에 꾸준히 천착해 온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적 지역연구는 축적되어 있고 않고,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실하고 품격 있는 연구서도 대단히 빈약한 형편이다. 더군다나 각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역지리학적 관련 논저도 턱없이 부족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점은 지리학의 정체성과 관련한 자기성찰은 차지하고라도, 학문의 사회적 기능 내지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결손이자 사회적 책임방기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지리학계의 지역지리학적 연구의 전망은 반드시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부분적으로 영미의 이론적 동향에 다소 편향된 측면을 지울 수 없으나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지역지리를 둘러싼 비판적 논의에서 지역지리학 연구에 대한 지리학계 일반의 관심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이래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대두된 각종 국토 및 지역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지리학적 연구도 우리만의 독특한 국토공간구조의 재편성 문제와 함께 각종 지역문제(지역격차, 지역문화, 지역주의와 지역정체성 등)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구조, 변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가치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수 있는(유우익, 1991), 부분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지양한 보다 종합적이고 영역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면, 지역지리 연구의 방법론적 장점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에서 국가사회나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척도의 단위 공간이나 장소에 관한 정보가 크게 요구

되는 동시에, 기존의 쏟아져 나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바로 지역지리학은 전통적으로 이처럼 정보를 창출하고 조직하고 종합하는데 대단한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지리학은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지역지리학적 연구방향을 강화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¹³⁾

이제 우리는 우리 나라 지역지리학 연구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또한 지역지리학 연구의 활성화를 둘러싼 현실적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지리학을 도대체 어떻게 구상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규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해답을 내놓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아니 이는 앞으로 계속하여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논제로 사료된다. 이 글에서는 다만 한국 지역지리학 연구의 미래지향적 당위와 발전적 전망을 염두에 두고 선진제국의 논의를 참조하여(Stewig, 1979; Blotvogel, 1996; 손명철, 1994), 지역지리학의 과제 및 개념구상과 결부된 몇 가지 태제들을 강령적으로 간략히 정리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적 연구과제로서 지역지리학은 결코 진부한 것이 아닌,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것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논거를 예컨대 학문 내적 조건과 외적 환경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계통지리학 분야의 전문화와 인접한 관련 학문과의 지나친 근접의 위험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지리학은 바로 지리학의 이심적 해체를 막아주는 통일적 학리라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지역지리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하다는 점이다(Wolf, 1994). 물론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지역과 관련된 개인과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정보나 상업적 정보에 대한 수요로부터 다양한 척도의 공간과 장소의 기능-구조와 재편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의 기여라는 요구까지 포괄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사회적 현안과 결부되어 있고, 정책적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지역지리학은 오늘날 더 이상 헤트너가 살았던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쓰여 질 수 없다. 전통

적인 접근방법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서술방식과 체제의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¹⁴⁾ 특정 지역관련 사상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기술하는 것은 결코 연구로서 평가받을 수 없으며, 기껏해야 학문연구의 예비단계의 작업으로 인식될 뿐이다. 따라서 지역지리학이 하나의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상의 수집을 뛰어 넘어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과제는 이를테면 실증주의적 또는 사회비판론적 지역연구나 지역주민의 실천적 삶에 관한 해석학의 의미로 구상될 수 있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창조적인 문제설정이 이루어지고 이론지향적·방법성찰적 성격을 굳건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지역지리학은 지적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도전적이며 혁신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문적 관심을 끌 수 있으며 경쟁력도 잃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지역지리학 연구를 하나의 연구프로그램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적 주제분야, 이론적 지평, 그리고 문제설정 등이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파악하기 보다 포괄적인 상위의 시각(즉, 하나의 큰 맥락,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지향의 실용적 관점에서) 하에서 자리 매김되고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은 물론이고 신지역지리학에서도 발견되는 이론과 경험(실증)의 구조적 비대칭 문제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소 부차적인 논점이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성격의 지역지리학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용어들(예컨대 공간, 토지, 지역, 정관, 자연환경)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들 용어는 대단히 불명료하고 모호하며, 따라서 새로운 이론구성에도 이따금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현 단계 우리 나라 지역지리학의 연구 추세를 간략하게 정리·평가하고, 이와 결부된 문제점과 미래의 과제를 나름대로 조망해 보았다. 오랫동안 지역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아 온 지리학에서 그 핵심적 학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역지리학적 연구가 우선 양적인 측

면에서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자연히 제한된 연구성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내 놓을 수 있는 내 실 있는 논저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의 다양한 단위 공간과 지역에 대한 지역지리학적 접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이론적·방법론적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심정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리학자들의 겸허한 자기성찰이 요구된다. 지역지리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도전과 분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문 외적으로 다양한 척도의 단위공간에 대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지리학의 사회적 존재기반과 그 발전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회가 지리학을 알아주기를 기대할 수만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지리학의 활성화는 적어도 1960년대 이후 서구의 (신)지리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우리 나라 지리학 연구의 편향성 또는 기형성을 바로잡는 동시에, 전통 지리학의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탈식민지적 주체적 학문연구의 자세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리학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현실적 삶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현장인 장소와 공간을 굳센 다리와 뜨거운 가슴, 그리고 냉철한 머리로 조사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학문적 강점을 갖고 있다. 오늘날 모든 학문은 타 학문분야와 경쟁하거나 맞서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학의 경쟁우위는 바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지역분석 능력에서 담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키우고 발휘하는 공은 이제 지역지리학으로 넘어 왔으며, 그 성공여부는 전체 지리학의 발전과도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註

1) 1950년대를 전후하여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지지)에

대한 비판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지가 단순히 사상을 수집하여 기술할 뿐만 아니라 단위 공간, 즉 지역의 특성을 개성기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었다. 둘째, 지지가 사회적 적합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실천의 문제는 거의 배제되고 상아탑의 학문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셋째 지지는 특히 지리학 밖에서 볼 때 명백한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지리결정론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지리학이 묵시적으로 기독교의 교구적(즉, 협소한) 세계관에 입각한 규범적 성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역지리학자들은 세계를 지역지리학자들의 '예술'(art)로 짜 맞추어야 하는 질서 잡힌 (장소의) 모자이크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Blotvogel, 1996).

- 2) 특히 이들은 사회학 또는 여타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속에서 표류하거나 학문적 분업이라는 테일러적 이해에서 인접 분야가 연구한 사회적 현상과 프로세스를 지리학적,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기하학적·지도학적 형태로 전환시키는데 만족하지 않고 지리학을 대안적으로 규정해보려고 시도하였다.
- 3) 예컨대 사회학자 기든스(A. Giddens)는 공간에 지리학 밖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위상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리학의 사고, 즉 헤거스트란트의 시간지리학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 4) 지역지리학의 지역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가 지역에 부여하는 존재론적 지위(ontological status)이다. 지역은 - 인간(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학문적 분석에 유용한 구성체로서 - 경험적인 관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존재론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개인과 역사가 왜 신(재구성된)지역 지리학의 핵심인가는 잘 보여 준다. 둘째, 신지역지리학의 옹호자들은 지역이 사회의 지속적인 표상 내지 특색이라는 가정에 동의하고 있다. 지역차가 사회의 근대화과정에서 소멸되고 있다는 근대화론자들의 확신과 달리, 이러한 차이는 사회의 본질적 요소 - 사회적 관계란 곧 시·공간적으로 우연한 현상이라는 의미에서 - 이므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단, 이러한 지역개념은 지역이 근대화의 동질화 경향에 대응하고 지체시키는 잠재력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코롤로기적(chorological) 지역개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세계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접근방법에 대한 구조적인 유추로서, 지역은 곧 사회적 관계의 결과이자 매개체라는 변증법적 이해이다(Wood, 2001).
- 5) 여기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지역지리학 연구와 지리교육과 결부시킨 논저로서 예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일기, 1983, 지지교육의 제문제,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석천 이찬박사 화갑기념논집), 595-613; 김중옥, 1994, 세계화를 위한 지역연구와 지역교육, 지리교육논집, 32, 1-15; 황홍섭, 1995, 지역지리학습에 있어서 음악작품의 활용,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 119-122; 권정화, 1997,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구성과 학습 이론의 조용, 대한지리학회지, 32(4), 511-520.

- 6) 이 글의 판단이 되는 태제이나, 필자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차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지리학계에서 공론을 통한 타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 7) 이러한 경향은 지방화가 제도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시대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1980년대 특히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사 연구의 경험을 계기로 삼아 각 지역 및 도시에 관한 학제적인 연구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성과도 계속 출간되고 있다.
- 8) 예컨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사례를 들 수 있다. 정일섭 외, 1999, 인천지역의 이해,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경기지역연구실(편), 1996, 수원지역의 현황과 과제, 서울, 오름;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1997, 경상남도 연구,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경기개발연구원, 1997, 파주지역연구(지역연구시리즈 1),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대구사회연구소(편), 1996, 자치시대, 대구·경북의 비전, 서울, 한울; 강원사회연구회(편), 분단강원의 이해, 서울, 한울; 김문조 외, 1998, 대전충청권의 도시화와 지역발전, 서울, 백산서당 등이다. 한편으로 지리학자 및 지리학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성과의 사례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최병두 외, 1995, 자치시대의 지역환경 - 대구·경북 환경문제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울; 권용우 외, 1998, 수도권연구, 서울, 한울; 이정록, 2000, 지방화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전남 동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비평, 서울, 푸른길; 용인시 등, 2000, 용인의 역사지리, 서울, 용인시.
- 9) 분류시 지역지리학적 접근이 아니어도 외국의 특정 지역을 연구한 것이면 모두 다 포함시키고 있지만, 외국인에 의한 외국지역 연구는 제외하고 있다.
- 10) 대표적인 연구사례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이전, 1994, 라틴아메리카 지리, 서울, 민음사; 이전, 1996, 인류와 문화, 전주, 경상대학교 출판부; 류제헌, 1999, 중국 역사지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11) 이점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 학회인 대한지리학회 발간사를 정리한 논저를 살펴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먼저 1976년 대한지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지리학 30년(1945-1975)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계통지리학(지형학, 기후학, 도시·촌락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역사지리학)을 비롯하여 지리교육, 응용지리학의 연구동향과 성과를 언급하고 있으나, 지역지리학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1996년의 “광복 50주년 및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전제한 대한지리학회지에 서도 지역지리학의 연구동향에 관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심포지움 제2부 21세기 한국지리학의 도전을 논의한 여러 분과에서 지역연구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 12) “한국에 있어서 지역지리학이 아직 뿌리를 못 내리

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해방 이후의 한국지리학이 구미의 지리학과는 달리 지역지리학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간개념에 기초를 두는 계통지리학 혹은 공간지리학으로 직접 이행했기 때문일 것이다”(류제헌, 1997).

- 13) 지역지리학의 종합적 특성은 당연히 방법론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연구의 시대적 상황조건과 적실성 문제일 것이다. 그 판단 기준은 이러한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는 사회발전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다루어져야 할 핵심적 분야는 아마도 환경생태적 문제와 포스트모던사회의 위기 등이다. 이러한 이슈의 복잡성 때문에, 이와 연관된 갖가지 지역 및 공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14) 이를테면 독일어권 지리학계의 헤트너의 지지도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서 지지학적 맥락에서 나온 슈페트만(Spethmann, 1928)의 동태적 지지(dynamische Laenderkunde)와 잔트너와 슈테거(Sandner & Steger, 1973)의 문제지향적 지지(problemorientierte Laenderkunde), 그리고 경관학적 전통에 유래하는 파사르제(Passarge) 등의 비교지지(vergleichende Laenderkunde), 라운텐자흐(Lautensach)의 지리학적 형태변이론(Formenwandellehre), 보베크와 슈미튀젠(Bobek & Schmithuesen)의 통합론(Integrationslehre)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文 獻

- 권정화, 1997,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구성과 학습 이론의 조용, 대한지리학회지, 32(4), 511-520.
- 권정화, 2001, 부분과 전체: 근대 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81-92.
- 김기혁, 2000, 인문지리학의 방법론,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편),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울, 169-203.
- 김상호, 1983, 지리학의 본질, 지리학논총, 10, 1-14.
- 김순희, 2000, 지역연구의 특성과 지리학과 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 35(2), 243-258.
- 김종규, 2000, 한국지리와 해외지역 연구,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편),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울, 274-297.
- 김종욱, 1994, 세계화를 위한 지역연구와 지역교육, 지리교육논집 32, 1-15.
- 김희순, 2000, 지역연구의 특성과 지리학과 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 35(2), 243-258.
- 류제헌, 1987, 미국 지리학에 있어서 지역개념의 발

- 달, 지리학 논총, 14, 345-358.
- 박규택·이상률, 1999, 공간, 사회, 사회/자연의 상호관련성에 의한 지역이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5-27.
- 박영한, 1987,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현황과 방법의 모색, 지리학, 35, 1-9.
- 서태열, 1989, 지역지리학 쟁점의 재조명: 1950-1989, 지리교육논집, 22, 80-91.
- 손명철 (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를 위하여, 서울, 명보출판사.
- 손명철, 1995, 프랑스에서의 지역지리연구에 대한 일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 81-92.
- 양보경, 2000, 전통시대의 지리학, 제29차 세계지리 학대회 조직위원회 (편),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울, 15-96.
- 유우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 6(4), 246-263.
- 유우익, 1991, 국토지리 -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지리학, 26(3), 259-264.
-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 지리학적 연구주제의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 이재하, 1997,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의 모색 -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15-134.
- 이전, 1998, 지리학과 해외지역연구,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379-401.
- 이정만, 1997, 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지리학논총, 29, 1-24.
- 이회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 형기주, 1987,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연구의 방향과 그 응용, 지리학, 35, 26-33.
- 森川 洋, 1997, ドイツにおける地誌學の研究動向, 廣島大學 地誌研年報, 6, 15-50.
- 森川 洋, 1998, 英語圏諸國における人文地理學の研究動向 - 地誌學を中心として (= 綜合地誌研 研究叢書 32), 廣島, 廣島大學綜合地誌研究資料センター.
- Bahrenberg, G., 1996, Die Laenderkunde im Paradigmenstreit um 1970,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41-54.
- Blotevogel, H. H., 1997, Aufgaben und Probleme der Regional Geographie Heute: Ueberlegungen zur Theorie der Landes- und Laenderkunde anlaesslich des Gruendungskonzepts des Instituts fuer Laenderkunde Leipzig,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11-40.
- Claval, P., 1998, *An Introduction to Regional Geography*, Oxford, Blackwell.
-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4), 208-228.
- Hauer, J. and Hoekveld, G., 1993, Introduction: Why regional human geography, in Hauer, J. et al., (eds.), *Moving Regions* (= *Nederlandse Geografische Studies* 161), 13-24.
- Hoekveld, G. et al., 1994, Introduction: Patterns in regional geography, in Terlouw, C., (ed.), *Methodological Exercises in Regional Geography: France as a Example* (= *Nederlandse Geografische Studies* 179), 3-10.
- Holmen, H., 1995, Whats New and Whats Regional in the New Regional Geography, *Geografiska Annaler*, 77B, 47-63.
- Hyong, K.-J., 1997, Foreign Area Research of Korean Geographers - Retrospects and Prospects, *대한지리학회지*, 32(4), 561-572.
- Johnston, R. J. et al., (eds.), *Regional Geography - Curr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London, Routledge.
- Pohl, J., 1996, Ansätze zu einer Hermeneutischen Begründung der Regionalen Geographie: Landes- und Laenderkunde als Erforschung regionaler Lebenspraxis?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73-92.
- Pudup, M. B., 1988, Arguments within Region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3), 367-390.
- Stewig, R., 1979, *Probleme der Laenderkund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Thrift, N., 1994, Taking Aim at the Heart of the

- Region, in Gregory, D. et al., (eds.), *Human Geography: Society, Space and Social Science*, London, Macmillan, 200-231.
- Werlen, B., 1997, *Sozialgeographie alltäglicher Regionalisierungen - Globalisierung, Region und Regionalisierung*,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 Wolf, K., 1994, Der gesellschaftliche Auftrag der geographischen Landeskunde,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68(2), 361-367.
- Wood, G., 1996, Regionale Geographie im Umbruch? Ansätze einer sozialwissenschaftlichen New Regional Geography im angelsächsischen Sprachraum,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55-72.
- Wood, G., 2001, Regional geography, in Smelser, N. J. and Baltes, B. B.,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Elsevier, Oxford.

(2002년 3월 15일 접수)